4주차

날짜 2018년 11월 21일

토의 내용 개요 - 프로젝트 소개 발표 ( 준일 )

Q&A (준일)

|  |
| --- |
| Q. 카카오톡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? |
| 카카오톡의 그룹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난잡하게 나열 되어 있고, 내용을 다시 찾는 것이 어렵다. 그래서 대화 내용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기능을 만들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. |
| Q. 카카오톡과 독립적인가? |
| 카카오톡과 연동할 수 있다면, 벌써 부터 성공한 플랫폼이 아닐까?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. |
| Q. 플랫폼이 아니라 서비스 아닌가? |
| 플랫폼이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, 또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. 우리가 만들 시스템은 사용자가 채팅에 대한 구조 및 형식을 정의할 수도 있고(서비스 만들기)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. |
| Q. 채팅을 어떻게 재사용 한다는 것인가? |
| 대화의 일부 내용을 저장하여 불러올 수도 있으며 대화의 내용에 카테고리를 지정하여,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면 아예 채팅에 무관한 사람들도 검색을 통하여 이를 접할 수 있게 된다.  기존의 채팅이 순수하게 대화의 기능만 있었다면, 우리의 시스템에선 이것을 분석하고 저장하고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 |
| Q.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. |
| 먼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.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없다면 비즈니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.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1000만명이 될 때 까지 비즈니스모델이 없었지만,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 성공할 수 있었다.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는 사용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. |

날짜 2018년 11월 26일 프로젝트 구조화 및 역할 분담

* 준원 : 유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조사

1.분더리스트(Wunderlist)